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 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 ■ 경제적 행복의 장애물 '노후준비 부족'

- 경제행복지수, 상승 추세 지속

# 목 차

## ■ 경제적 행복의 장애물 ‘노후준비 부족’

- 경제행복지수, 상승 추세 지속

Executive Summary .....	i
1. 경제적 행복의 가장 큰 장애물: ‘노후준비 부족’ .....	1
2. 경제행복지수, 상승 추세 지속 .....	3
3. 경제 현안 관련 국민의식 .....	11
4. 시사점 .....	13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 책 조 사 실 : 김 동 열 정책조사실장 (2072-6213, dykim@hri.co.kr)

## Executive Summary

### < 요약 >

#### ■ 경제적 행복의 가장 큰 장애물 : '노후준비 부족'

우리 국민들의 '경제적 행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노후준비 부족'(28.8%)이었으며, 이어서 '자녀양육/교육'(21.9%), '일자리부족'(20.2%), '주택문제'(19.1%)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연령대에 따라 응답이 달라졌는데, 20대는 '주택문제'와 '일자리 부족', 30대는 '주택문제'와 '자녀양육/교육', 40대는 '자녀 양육/교육'과 '노후준비 부족', 50세 이상은 '노후준비 부족'과 '일자리 부족'을 가장 큰 장애물로 꼽았다.

#### ■ 경제행복지수, 상승 추세 지속

작년 12월 중순에 실시된 제17회 '경제행복지수' 조사 결과 44.6(전기대비 +4.2포인트)으로 2007년 이래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는 작년 하반기에 정부가 실시한 개별소비세 인하, 추경 집행 등 소비활성화 대책의 효과로 판단된다. 미래의 '경제행복 예측지수'도 63.7로 6개월 전에 비해 크게 상승(+6.4포인트)하였다. 추세적으로 보면, '경제행복지수'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았던 2008년 12월(제3회 조사)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015년 12월 현재 경제적으로 가장 행복한 그룹은 '30대', '미혼', '여성', '전문직' 등이었으며, 반대로 가장 불행한 그룹은 '50대', '이혼/사별', '주부' 등으로 나타났다. 경제행복지수의 6개 구성 항목 중 '경제적 평등'이 22.1점으로 가장 저조했고, '경제적 불안'이 30.7점으로 두 번째로 부진함에 따라, 이 2개 항목이 전체 평균(44.6점)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미래에도 경제적 불평등이 완화되기 어렵다는 부정적 인식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서 대책이 필요하다. 연령별로 '50대'의 행복감이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은퇴를 앞둔 50대의 고용 불안과 노후준비 부족 등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 ■ 경제 현안 관련 국민의식

2016년에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4대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47.7%)이라는 응답이 절반에 가깝게 많았으며, '주택가격 안정화'(24.2%), '규제 개혁 통한 투자활성화'(16.5%), '기업 구조조정'(11.5%)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4대 구조개혁 중 가장 시급한 것은 '노동개혁'(44.8%)으로 나타나, 최근 노동개혁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의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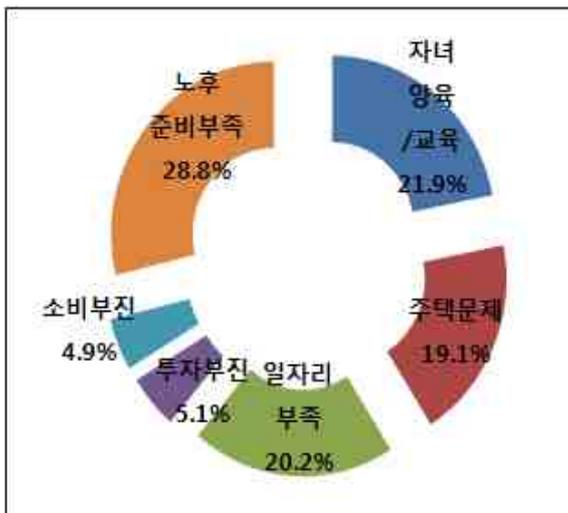
#### ■ 시사점

'노후준비 부족'을 보완해 줄 수 있도록 주택을 담보로 한 '주택연금'(역모기지) 활성화, 고령자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밀집형 공공임대아파트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아울러,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주거비와 교육비 관련 지원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50대 이상의 행복지수 제고를 위해,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등 고용의 유연안정성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관련 법안의 합의와 통과가 시급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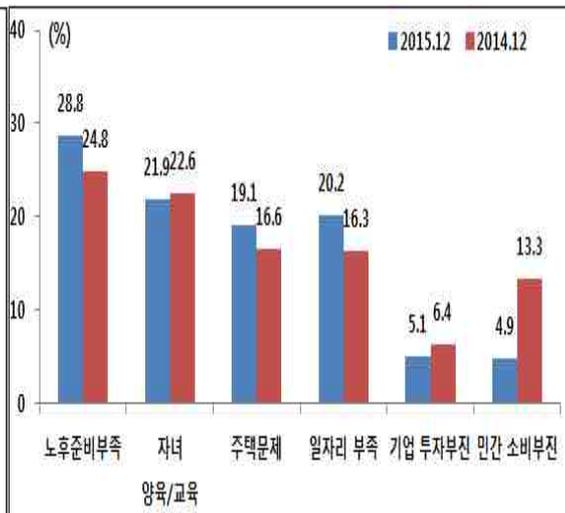
## 1. 경제적 행복의 가장 큰 장애물: '노후준비 부족'<sup>1)</sup>

- '경제적 행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노후준비 부족'(28.8%)이라고 응답했으며, 이어서 '자녀양육/교육'(21.9%), '일자리부족'(20.2%), '주택문제'(19.1%) 등 3가지가 중요한 장애물로 거론됨
- '노후준비 부족'(28.8%)이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응답은 1년 전(2014년 12월, 24.8%)에 비해 더 많아졌으며, '일자리부족'(20.2%)과 '주택문제'(19.1%)를 호소하는 응답도 1년 전에 비해 더 많아졌음
- 연령대에 따라 응답도 달라졌는데, 20대는 '주택문제'와 '일자리 부족', 30대는 '주택문제'와 '자녀양육/교육', 40대는 '자녀 양육/교육'과 '노후준비 부족', 50세 이상은 '노후준비 부족'과 '일자리 부족'을 장애물로 꼽았음
- 20대는 사회에 진입하는 세대로서 '주택문제'(39.1%)와 '일자리 부족'(30.9%)이 가장 큰 골칫거리였으며, 30대는 결혼하고 가족을 꾸려가는 연령대이므로 '주택 문제'(32.7%)에 가장 민감했으며 다음은 '자녀 양육/교육'(22.6%)이었음
- 40대는 '자녀 양육/교육'(38.7%)이라는 응답이 많았고, 50세 이상은 '노후준비 부족'이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음

< 경제적 행복의 장애물 >



< '경제적 행복의 장애물' 응답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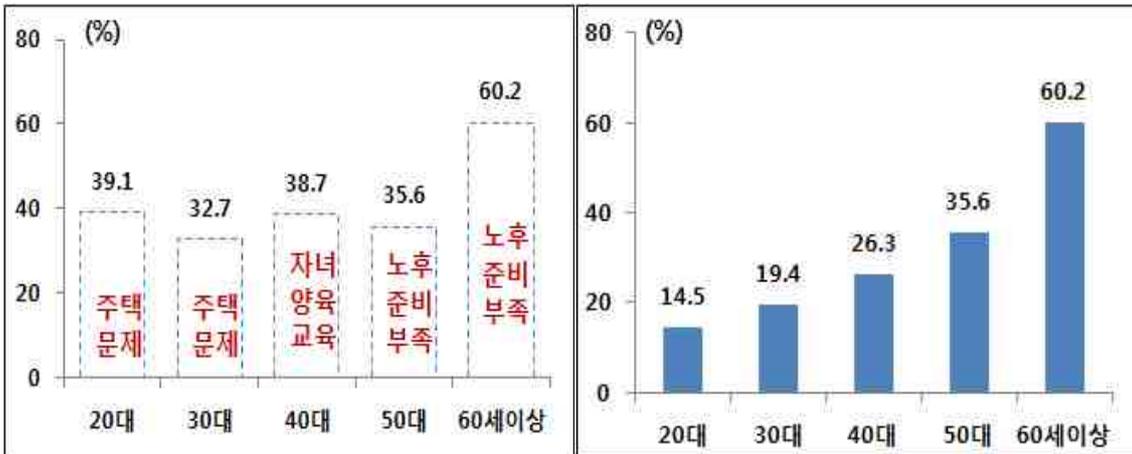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1) 이번 조사는 2015년12월10일부터 18일까지, 전국 20세 이상 성인남녀 807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형태로 실시됨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5%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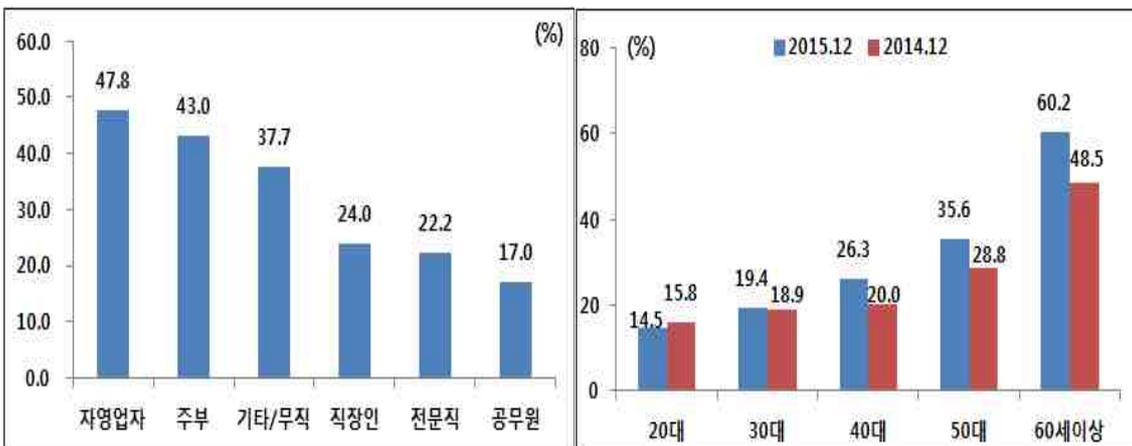
- '노후준비부족'(28.8%)이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한 응답자를 연령별로 나눠본 결과, 나이가 많아질수록 응답률이 급격히 올라가는 특성을 보임
- '노후준비부족'이라는 응답이 20대는 14.5%, 30대는 19.4%에 불과했으나, 40대는 26.3%, 50대는 35.6%, 60대 이상은 60.2%로 급격히 상승함
- '노후준비부족'(28.8%)이라는 응답을 직업별로 나눠본 결과, 자영업자(47.8%)와 주부(43.0%)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음
- 자영업자나 주부는 최근 경기침체에 따라 소득이 감소하고 있어서 '노후준비'를 제대로 하기 어려운 형편이라고 해석됨

< 연령별 '경제적 행복의 장애물' > < '노후준비부족'의 연령별 응답률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 '노후준비부족'의 직업별 응답률 > < 연령별/연도별 '노후준비부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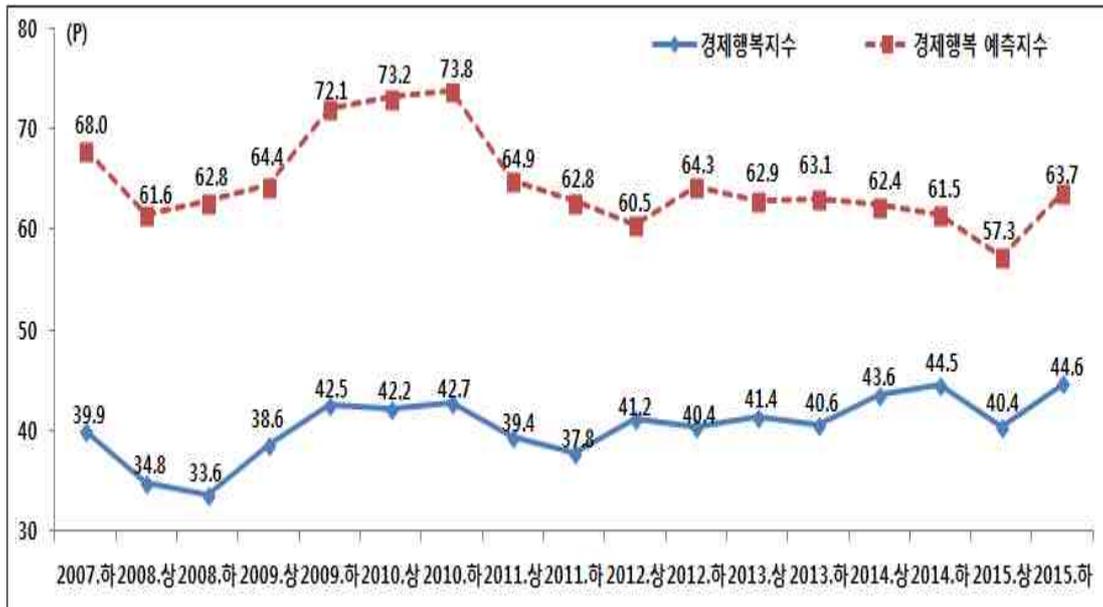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 2. 경제행복지수, 상승 추세 지속2)

○(추이) 제17회 경제행복지수3)는 작년 하반기 정부의 소비활성화 대책에 힘입어 2007년 이래 상승세를 지속했고 '경제행복 예측지수'도 63.7로 크게 상승하여, '메르스 사태' 와중에 실시된 제16회 조사결과의 부진을 털어냄

- 경제행복지수가 작년 하반기 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 추경 집행,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 행사 등 소비활성화 대책에 힘입어 2007년 이래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100점 만점에 44.6점으로 중간값(50점)에 여전히 미달4)함
- 추세적으로 보면, '경제행복지수'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았던 2008년 12월(제3회 조사)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 반면, '경제행복 예측지수'는 2010년 12월(제7회 조사) 이후 하향 추세로서, 향후 경제적 행복에 대한 자신감이나 확신이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줌
- '경제행복 예측지수'의 하락 추세는 최근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저성장 등 경제 활력의 감소와도 상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됨

< 경제행복지수 추이 >



2) '경제행복지수' 조사는 매년 6월과 12월, 2회 실시되며, 제17회 조사는 2015년 12월 10일부터 18일까지, 전국 20세 이상 성인남녀 807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형태로 실시됨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5%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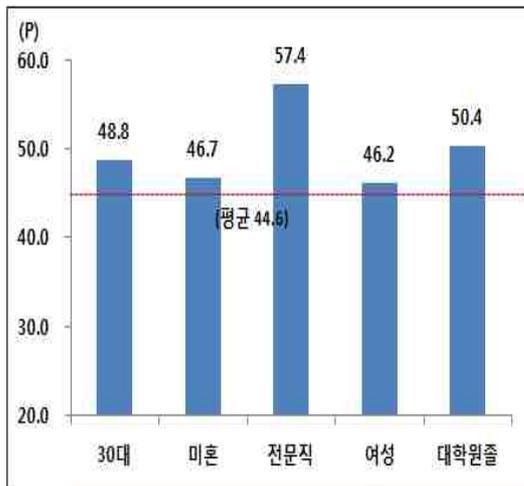
3) '경제행복지수'의 구성, 설문지, 지수 계산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별첨 자료 참조.

4) 이는 지수의 6가지 세부항목 중 '경제적 평등'(22.1점)과 '경제적 불안'(30.7점) 항목의 부진에서 주로 기인. 본문 4쪽, 5쪽, 6쪽의 설명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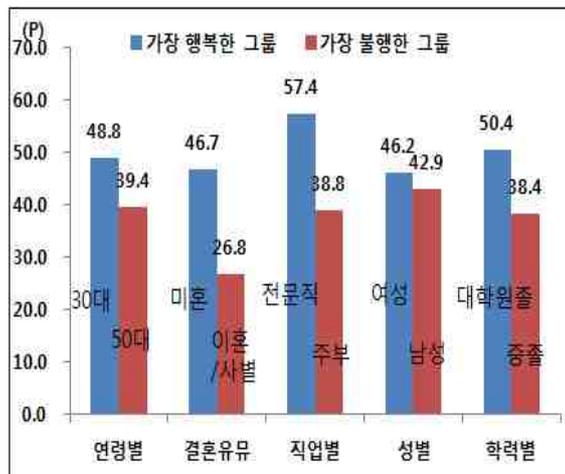
○(가장 행복한 그룹) 2015년 12월 현재 경제적으로 가장 행복한 그룹은 '30대', '미혼', '전문직' 등이었으며, 반대로 가장 불행한 그룹은 '50대', '이혼/사별', '주부' 등으로 나타남

- 제17회 조사 결과, 경제적으로 가장 행복한 그룹은 30대, 미혼, 전문직, 여성, 대학원졸에 해당하는 그룹이었으며, 반대로 가장 불행한 그룹은 50대, 이혼(사별), 주부, 남성, 중졸에 해당하는 그룹이었음
- 직업별로 가장 불행한 그룹은 주로 '자영업자'가 꼽혀 왔으나, 이번에는 자영업자(40.2점)보다 주부(38.8점)가 더 낮게 나타남. 계속되는 경기부진과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실제 소비할 수 있는 가처분소득이 감소하여, 가계를 꾸려야 하는 주부의 행복감이 크게 하락했을 것으로 판단됨

< 가장 행복한 그룹 >



< 가장 행복 · 불행한 그룹 비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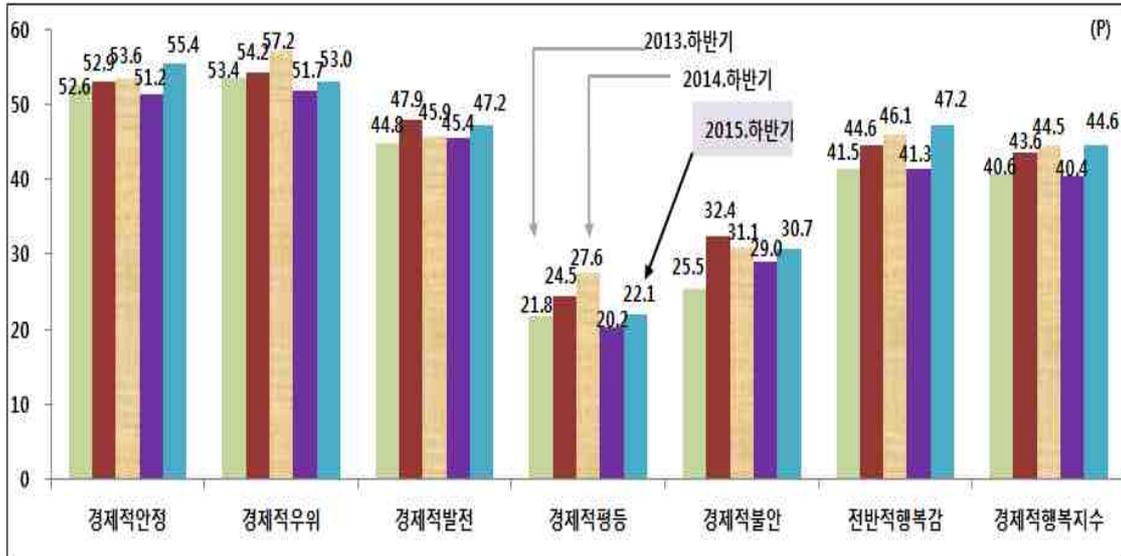


○(항목별) 경제행복지수의 6개 구성 항목<sup>5)</sup> 중 '경제적 평등'이 22.1점으로 가장 저조했고, '경제적 불안'이 30.7점으로 두 번째로 부진함에 따라, 이 2개 항목이 전체 평균(44.6점)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전반적 행복감(47.2점)과 '경제적 안정'(55.4점)이 크게 향상되었지만, '경제적 우위'(53.0점)와 '경제적 발전'(47.2점)은 소폭 상승했으며, '경제적 평등'(22.1점)과 '경제적 불안'(30.7점)은 절대적인 수치가 너무 낮은 상황임

5) '경제행복지수'의 구성, 설문지, 지수 계산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별첨 자료 참조.

< 항목별 경제행복지수 비교 >



- '경제적 평등'(22.1점)을 구성하는 2가지 세부 항목 중에서 '현재의 불평등 수준'(27.1점)보다 '향후의 불평등 전망'(17.0점)이 더 비관적이라는 점에서 향후 소득격차 완화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함
- '앞으로 우리 사회는 지금보다 경제적으로 평등해질 것이다'라는 질문에 대해 '아니다'라고 부정적으로 전망한 응답자의 비율이 2009년 12월(제5회 조사) 65.3%에서 2015년 12월(제17회 조사) 75.7%로 상향 추세를 그리고 있음

< '경제적 평등' 세부 구성항목의 응답률 추이 >



- '경제적 불안'(30.7점)을 구성하는 2가지 세부 항목 가운데 '체감실업률 불안'(33.1점)보다 '체감물가 불안'(28.2점)이 상대적으로 더 낮으며, 지수가 낮을수록 불안감이 더 크다고 해석됨
  - 추세적으로 보면, 체감물가로 인한 불안감은 2011년 12월(제9회 조사) 이후 감소하고 있음. 즉, '내가 느끼는 체감물가는 나를 불안하게 한다'는 설문에 대해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1년 12월(제9회 조사) 75.6%로 정점을 찍은 이후 계속 하락하여 2015년 12월(제17회 조사) 59.6%를 기록. 이는 최근 지속되고 있는 저유가와 저물가의 흐름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 '내가 느끼는 체감실업률은 나를 불안하게 한다'는 설문에 대해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2009년 12월(제5회 조사) 61.7%에서 2015년 12월(제17회 조사) 57.0%로 완만한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박근혜 정부 이후 고용율의 증가 추세와 그로 인한 긍정적 효과라고 해석할 수 있음

< '경제적 불안' 세부 구성항목의 응답률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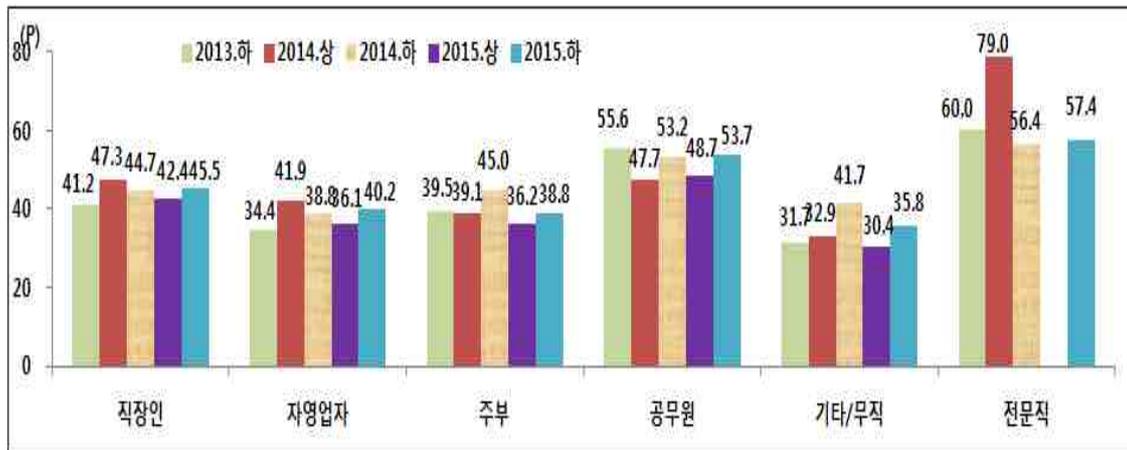


○(직업별) 직업별로는 '전문직'(57.4점)과 '공무원'(53.7점)의 경제행복지수가 높은 편에 속했으며, '자영업자'(40.2점)와 '주부'(38.8점)는 낮은 편에 속함

- '전문직'의 경우 소득도 높고 고용의 안정성도 좋은 편이기에 경제적 행복감이 높게 나타나며, '공무원' 역시 고용의 안정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전문직'과 더불어 경제적 행복감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반면, 계속되는 불경기로 인해 '자영업자'의 경제적 행복감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주부' 역시 가계의 소득증가는 미미한 상태에서 가계부채

- 증가, 가처분소득 감소 등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판단됨
- '기타/무직'의 경우, 다른 직업군에 비해 고용상태 및 소득수준이 가장 열악하기 때문에 행복감도 가장 떨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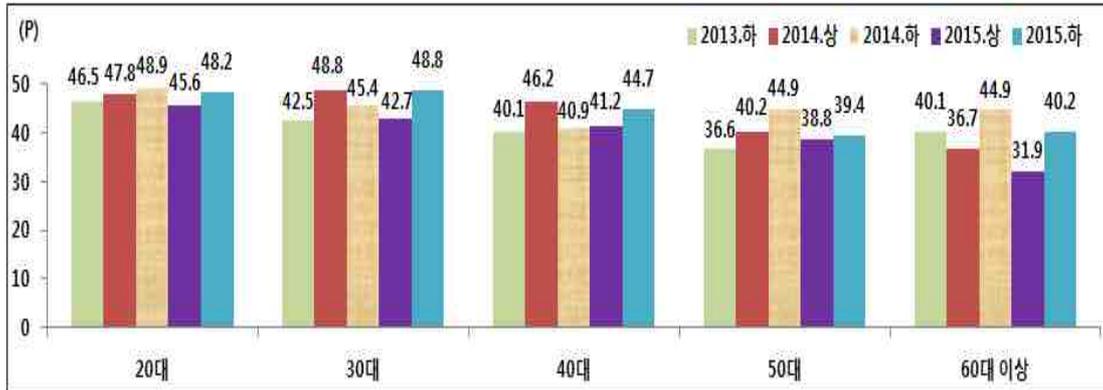
< 직업별 경제행복지수 >



주 : '전문직'은 표본추출이 쉽지 않고 샘플이 작아서 '경제행복지수'의 변동폭이 크며, 2015년 상반기(제16회 조사)에는 샘플이 너무 작아 '기타'로 통합하여 처리한바 있음.

- (연령별) 연령별로는 '30대'(48.8점)가 가장 높고 '50대'(39.4점)가 가장 낮았으며, '20대'(48.2점)와 '30대' 등 젊은 층의 경제행복지수가 '50대'와 '60대 이상'(40.2점) 등 고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편이었음
- '50대'의 경우에 직장에서 은퇴를 했거나 은퇴 직전이며, 자영업에 진입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등 가장 행복감이 떨어지는 세대로 나타남.
  - '50'대에 이어서 '60대 이상'의 경우에도 경제적 행복감이 낮았지만, 기초연금 등의 보완으로 '50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행복감이 소폭 높았음
  - 20대와 30대는 경제적인 부담이나 책임감이 무겁지 않은 시기이고 아직 희망이 있는 세대로서 행복감이 높게 나타남
  - 반면, 40대는 주택마련과 자녀교육의 부담, 50대는 노후준비와 자녀결혼의 부담, 60대 이상은 노후준비 부족과 소득 감소 등으로 인해 나이가 많아질수록 행복감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
  - 연령별 1회~17회 평균값 : 20대 46.2점 > 30대 43.8점 > 40대 39.8점 > 50대 37.0점 > 60대 이상 36.1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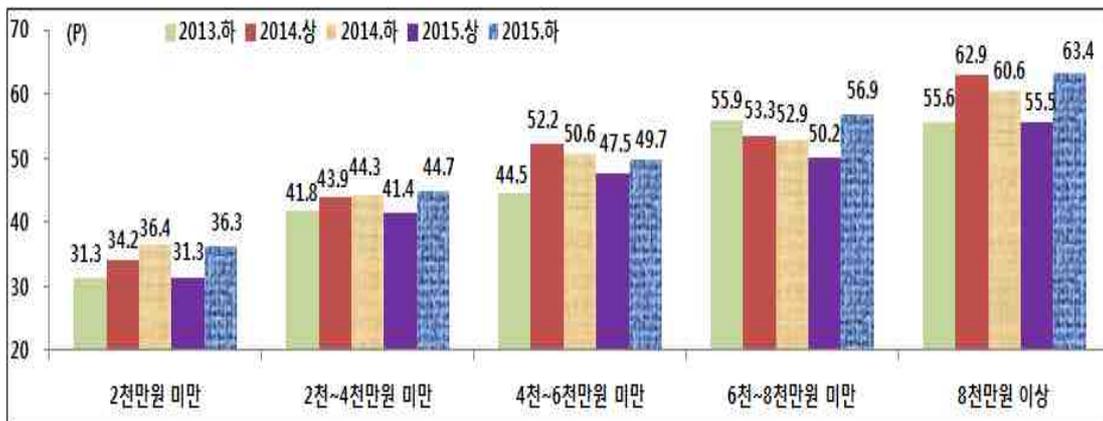
< 연령별 경제행복지수 >



○(소득별) 소득별로는 '8천만원 이상'(63.4점)의 고소득으로 갈수록 경제적 행복감이 높아지고 있으며, '8천만원 이상'에 속하는 최고소득계층에서 행복지수 상승폭(전기대비 +7.9점)이 상대적으로 컸음

- 소득계층별로 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행복감이 낮아지고, 소득이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은 지금까지의 추세와 비슷한 결과를 보여줌
-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8천만원 이상'(63.4점, 전기대비 +7.9점)에 속하는 최고소득계층에서 행복지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컸음
- '2천만원미만'(36.3점) 저소득층과 '8천만원이상'(63.4점) 고소득층의 행복지수 격차는 1.7배 안팎으로 유지되고 있음
- 1회~17회 평균 : '2천만원 미만' 31.1점 > '2천~4천만원 미만' 41.2점 > '4천~6천만원 미만' 48.1점 > '6천~8천만원 미만' 54.7점 > '8천만원 이상' 60.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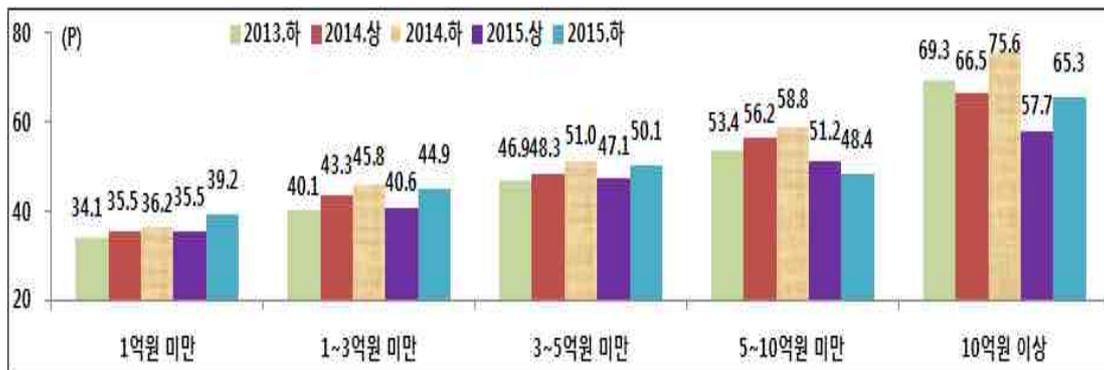
< 소득별 경제행복지수 >



○(자산별) 자산 규모가 커질수록 경제적 행복감이 가장 높아지는 지금까지의 추세와 비슷했지만, '5억~10억원 미만'(48.4점) 그룹의 경제적 행복감이 전기대비 하락<sup>6)</sup>함에 따라 '3억~5억원 미만'(50.1점) 그룹보다 조금 낮아짐

- 자산규모 '1억원 미만'(39.2점)의 경제적 행복감이 가장 낮고, '10억원 이상'(65.3점)의 행복감이 가장 높게 나타나 지금까지의 추세와 비슷했으며, '10억원 이상' 최고액 자산계층의 경제행복지수 상승폭(+7.6점)이 가장 컸음
- '1억원 미만'(39.2점)과 '10억원 이상'(65.3점)의 행복지수 격차는 1.7배 정도로 유지되고 있음
- 1회~17회 평균 : '1억원 미만' 33.4점 > '1억~3억원 미만' 41.5점 > '3억~5억원 미만' 48.0점 > '5억~10억원 미만' 52.8점 > '10억원 이상' 61.5점

< 자산별 경제행복지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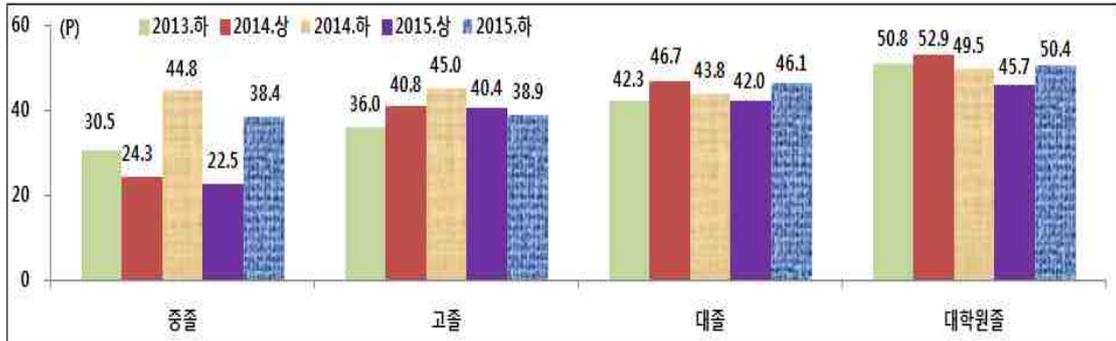


○(학력별) 학력별로는 '중졸'(38.4점)의 경제적 행복감이 가장 낮고, '대학원졸'(50.4점)의 경제적 행복감이 가장 높게 나타나 과거의 추세와 비슷함

- '중졸'(38.4점)과 '고졸'(38.9점)의 경제행복지수 값이 평균(44.6점)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대졸'(46.1점)은 평균보다 약간 높았고, '대학원졸'(50.4점)의 경제적 행복감이 가장 높았음
- '고졸'은 6개월 전에 비해 경제행복지수 값이 하락(-1.5점)한 것으로 나타남
- 중졸이나 고졸의 경우 상대적으로 고령층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 자영업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이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되며, 고령층과 자영업자의 경제행복지수 값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함

6) 우리나라에서 '5억~10억원 미만' 계층의 경우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 주택담보대출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 등으로 경제적 애로사항이 작지 않음.

< 학력별 경제행복지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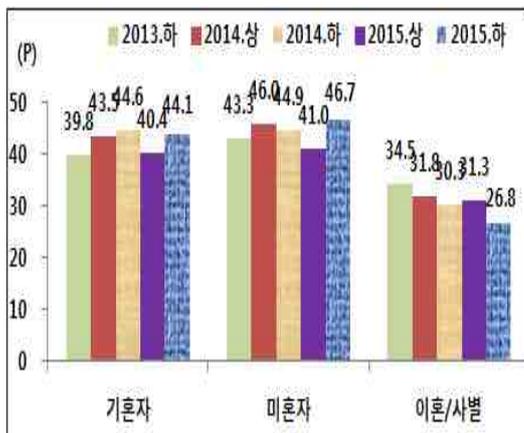
○(결혼여부별) 과거 조사와 마찬가지로, '미혼'(46.7점)의 경제행복지수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기혼'(44.1점), 그리고 '이혼/사별'(26.8점)이 가장 낮음

- '미혼'은 경제적 부담과 책임감이 '기혼'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으며, '이혼/사별'은 경제적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

○(지역별) 지역별로 보면, 경기, 대구, 제주, 충남, 대전 등이 상대적으로 다른 시도에 비해 경제행복지수가 높게 나타남

- 경기, 대구, 제주의 경우 상대적으로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았다는 점, 제주의 경우 중국 관광객의 유입이 많았다는 점 등이 지역경제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미쳤을 것으로 판단됨

< 결혼여부별 경제행복지수 >



< 경제행복지수 상위 지역 >



### 3. 경제 현안 관련 국민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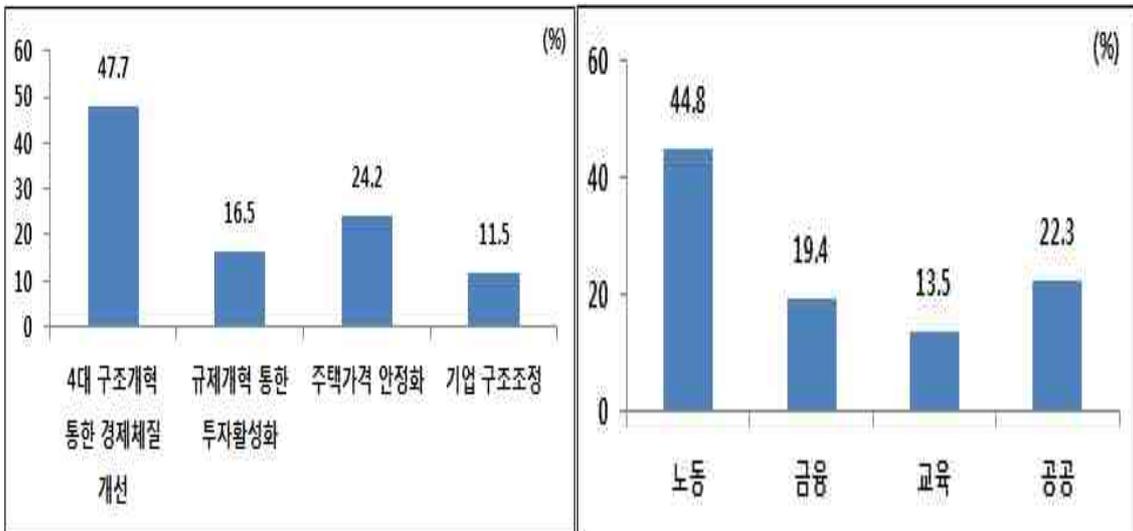
○(2016년 중점 추진과제) 2016년에 우리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는 '4대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47.7%)이라는 응답이 절반에 가깝게 많았음

- 이어서, '주택가격 안정화'(24.2%)와 '규제개혁 통한 투자활성화'(16.5%), '기업 구조조정'(11.5%)의 순이었음
-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인 '구조개혁과 경제체질 개선'에 관한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4대 구조개혁) 공공, 금융, 노동, 교육 등 4대 구조개혁 분야 가운데 2016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분야로는 '노동개혁'(44.8%)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음

- 이어서 '공공개혁'(22.3%), '금융개혁'(19.4%), '교육개혁'(13.5%)의 순이었는데, 이는 '노동개혁'이 가장 부진하고, '공공개혁'도 더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됨
- '노동개혁'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은 이유는 최근 노동개혁 관련 5개 법률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됨

< 2016년 정부의 중점 추진과제 > < 4대 구조개혁 중 중점추진분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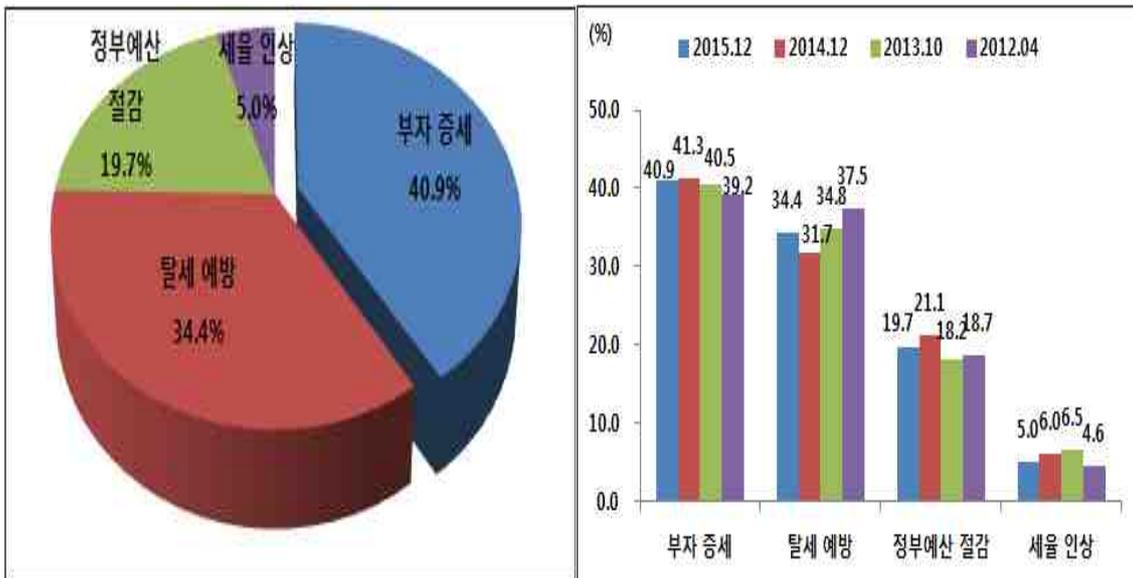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 (재원조달 방안) 경제적 행복을 뒷받침하는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재원조달 방안으로는 '부자 증세'(40.9%), '탈세 예방'(34.4%), '정부예산 절감'(19.7%)의 순이었고 스스로에게 부담이 되는 '세율 인상'은 5.0%에 불과
- 복지를 위한 재원 조달은 고소득층, 정부 등이 먼저 노력하고, 나를 비롯한 국민 모두의 책임(세율 인상)은 가장 나중에 선택하는 뉘프(NOOMP(Not Out Of My Pocket )현상<sup>7)</sup>이 여전이 관찰됨
- '부자 증세'는 2012년 39.2%, 2013년 40.5%, 2014년 41.3%, 2015년 40.9%로 계속해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어서 '탈세 예방'도 각각 37.5%, 34.8%, 31.7%, 34.4%로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정부예산 절감'은 19.7%로서 2012년 18.7%, 2013년 18.2%, 2014년 21.1%와 비슷한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음
- '세율 인상'<sup>8)</sup>은 응답자 스스로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항목으로서 지금까지의 조사와 마찬가지로 5.0%에 불과한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2012년 4.6%, 2013년 6.5%, 2014년 6.0%, 2015년 5.0%

< 복지강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

< 연도별 '재원조달 방안' 추이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주 : 4회의 조사 시점(2015.12, 2014.12, 2013.10, 2012.04)별로 비교함.

7) 현대경제연구원, '복지의식의 이중성과 뉘프(NOOMP) 현상', 경제주평 12-12(Vol. 483), 2012.4.2

8) 이러한 결과는, 세율이 동일한(10%) 부가가치세를 올리는 것('세율 인상')보다는 소득세의 누진구조 강화('부자 증세')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4. 시사점

- '노후준비 부족'이 경제적 행복의 가장 큰 장애물로 파악됨에 따라, 주택을 담보로 한 '주택연금'(역모기지) 활성화, 다수의 고령자들이 모여서 함께 생활할 수 있는 밀집형 공공임대아파트 등 노후지원 대책이 필요함
- '경제적 불평등'과 관련된 하위 지수 값이 가장 저조하며, 그 중에서도 특히 '향후에도 경제적 불평등이 완화되리라고 기대하지 않는다'는 부정적 인식이 널리 확산되고 있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인식은 최근 들어 더 악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 심각하여, 전체적으로 '경제행복지수'의 수치를 떨어뜨리는 핵심 요인임
  - 주거비와 교육비 등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에 대해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며, 예를 들면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정책, 사교육이 필요 없을 정도로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활성화하는 대책 등이 필요함
- '50대'의 경제행복지수가 가장 낮고 '노후준비 부족'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노동개혁 법안의 원만한 타결과 통과를 통해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등 고용의 유연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시행되어야 함
  - '60대 이상' 고령자들의 노후 지원을 위하여, 고령친화적 일자리 창출과 노후 소득 확충을 위한 지원 등도 지속적으로 준비되고 시행되어야 함
- '주부'와 '자영업자'의 행복감이 가장 낮게 나타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경기침체, 가계부채 증가, 소득감소 등으로 악순환되지 않도록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체질 강화'와 더불어 '단기 경기조절 대책'도 함께 필요함
  - 2015년 하반기의 대규모 소비활성화 대책이 올해에는 거꾸로 '소비 절벽'을 초래하지 않고 연착륙할 수 있도록, 단기 경기조절 대책도 준비되어야 함

김동열 정책조사실장 (02-2072-6213, dykim@hri.co.kr)

<별첨 1> 조사 개요

○ 개요

- 조사기간 : 2015년 12월 10일 ~ 12월 18일 (9일간)
- 조사대상 : 전국 20세 이상 성인 남녀 807명
- 조사방식 : 전화 설문조사 (지역별 최소할당과 인구비례에 의한 배분)
- 오차범위 : 95%신뢰수준에서 ±3.5%p

○ 응답자 특성

전체	성별		연령별					학력별			
	남성	여성	20대	30대	40대	50대	60이상	중졸	고졸	대졸	대학원 이상
807명	408	399	111	220	196	179	101	30	182	519	76
%	50.6	49.4	13.8	27.3	24.3	22.2	12.5	3.7	22.6	64.3	9.4

전체	직업별						소득수준별 (연간, 만원)				
	직장인	자영업자	주부	전문직	공무원	무직, 기타	2천 미만	2천~4천	4천~6천	6천~8천	8천 이상
807명	460	93	84	18	88	63	217	374	145	50	19
%	57.0	11.5	10.4	2.2	10.9	7.8	26.9	46.3	18.0	6.2	2.4

## <별첨 2> '경제행복지수'의 개요

### ○ '경제행복지수'의 정의

- '경제행복지수'란 개인이 경제적 요인과 관련하여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상태에 대한 평가로서 경제상태, 의식, 외부 요건 등에 의해 변화되는 것으로 정의
- 본 연구에서는 '경제행복지수'를 EHI(Economic Happiness Index)로 명명

### ○ '경제행복지수' 작성의 목적

- 경제적 행복의 의미를 정의하고, 우리국민이 실제로 느끼는 경제행복지수를 일정주기별로 반복적으로 측정하여 발표함으로써 관련된 경제·사회·정치적 의사결정의 의미 있는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함
- 2007년 12월부터 반기별로 조사 발표

### ○ '경제행복지수'의 구성 요소

-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행복을 구성하는 5개 요소는 ①경제적 안정 ②경제적 우위 ③경제적 발전 ④경제적 평등 ⑤경제적 불안이며, 각각의 요소를 지수화 한 후, 종합하여 경제행복지수를 산출함

### < 경제적 행복을 구성하는 5개 요소 >

		이론 및 근거	내용
①	경제적 안정 지수	Maslow(1934) Need theory	어느 일정 수준의 경제적 생존이 보장되지 않는 한 다음 단계의 욕구로 진행되지 않음
②	경제적 우위 지수	Frank Robert(1986)	사람은 그가 속한 사회에서의 상대적인 경제적 지위에 따라 행복을 느끼는 수준이 다름
③	경제적 발전 지수	Daniel Kahneman(1979) Prospect theory	경제적 발전 가능성이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
④	경제적 평등 지수	Veenhoven(2006) Inequality-Adjusted Happiness	개인의 경제적 행복은 소속 집단에서의 경제적 불평등도에 의해 차이를 나타냄
⑤	경제적 불안 지수	Okun(1976) Misery Index	물가, 실업률 등 외부 요인이 개인을 불안하게 하는 작용을 함

## ○ '경제행복지수'의 계산 방식

- '경제행복지수'(EHI)는 '5개 하위지수' 와 '전반적 행복감' 의 종합으로 구성됨
- 5개 요소 하위지수는 각각 긍정 100점, 중립 50점, 부정 0점으로 하여 평균을 낸 점수임
- 경제적 불안은 다른 4개 하위지수와 반대로 계산. 따라서 값이 높을수록 불안감은 낮아짐을 의미함
- 전반적 행복감은 경제적 행복의 정도를 직접 물어서, 경제적으로 행복하다 100점, 보통이다 50점, 경제적으로 행복하지 않다 0점으로 하여 평균을 냄
- 경제행복지수는 최소 0점에서 최대 100점, 중간값 50점임

$$EHI = \frac{\frac{\textcircled{1} + \textcircled{2} + \textcircled{3} + \textcircled{4} + \textcircled{5}}{5} + \textcircled{6}}{2}$$

## ○ ('경제행복 예측지수') 미래 경제적 행복의 변화에 대하여, 즉 경제적 행복의 예측에 대하여 추가로 조사

- '경제행복지수'와는 별도로 경제적 행복의 변화에 대하여 예측해 보고자 독립된 별도 문항을 측정하여 지수화 하고자 함
- '나는 앞으로 경제적으로 보다 행복해질 것으로 생각한다' 에 대하여 질문하여, '그렇다'와 '아니다'의 비율의 차(가중치 0.5 적용)에 50을 더하여, 50 이상이면 경제적 행복이 좋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50 미만이면 그 반대임 (BSI 산출방식과 동일)
- 예로써 '예'가 60% 이고 '아니오'가 40% 이면  $60 - 40 = 20$ 이 나오고 여기에 가중치0.5를 곱하고, 50을 더하면 '예측지수'는 60이 지수가 됨
- 경제적 행복예측은 최소 0점에서 최대 100점, 중간값 50점임

○ '경제행복지수'의 설문문항

구분		질문	답변
경제적 행복 구성 요소	① 경제적 안정	나(또는 귀댁의 가장)의 일자리와 소득은 비교적 안정적이다. 지금의 추세라면 내 노후의 경제상황은 안정적일 것 같다.	(1)그렇다 (2)반반이다 (3)아니다
	② 경제적 우위	나는 내 주변 사람들보다 경제적으로 나은 편이다 최근 6개월간 경제적 열등감으로 마음 상한 경험이 있다.	
	③ 경제적 발전	나의 소득, 자산 등 경제력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나의 경제적인 생활수준은 나아지고 있다.	
	④ 경제적 평등	현재 우리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은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앞으로 우리사회는 지금보다 경제적으로 평등해 질 것이다.	
	⑤ 경제적 불안	내가 느끼는 체감 물가는 나를 불안하게 한다. 내가 느끼는 체감 실업률은 나를 불안하게 한다.	
⑥ 전반적 행복감	나는 경제적으로 행복하다.		
경제행복 예측		나는 앞으로 경제적으로 보다 행복해 질 것으로 생각한다.	(1)예 (2)아니오